

< 제7장 · 환경금융의 기반 확충 및 활성화 II >

다. 녹색금융상품 및 현황

□ 소매금융(Retail Banking)

- 녹색장비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녹색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 유발
  - Green Mortgage, Energy efficient Mortgage는 에너지 효율 주택 구입, 에너지 효율 장비 설치에 대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제공함
  - Green Commercial Building Loan은 그린 상업빌딩을 겨냥한 저에너지 소비, 쓰레기 낭비와 오염감축 등을 위한 대출 계획
  - 녹색장비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녹색기술에 대한 수요 증대 효과 유발
  - Green Home Equity Loan은 가정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이 설치되도록 장려함

##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표 5-28> 해외의 녹색금융 상품 현황(소매금융)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H o m e Mortgage	CFS	영국	매년 무료로 주택 에너지 사용등급 측정 탄소 배출량을 상쇄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사항을 가할 예정
E n e r g y Efficient Mortgage	Citi group	미국	중·저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절약한 전력은 빌리는 사람의 소득으로 들어오도록 설계 Citi는 상품의 수요 증가를 위해 상품의 질을 개선하고, 판로를 늘릴 예정임
Commer c i a l Building Loan	N R B , Wells Fargo , TAF/Tri del	북미	새 콘도 건설을 위한 Green loan 기존의 건물보다 25% 정도의 에너지가 절약될 경우 우대
H o m e E q u i t y Loan	Citigroup , NRB, Bendigo, Wainwright Bank 등	Vario us	NRB One-Step Solar Financing 만료 기간이 태양 전지판 보증기간과 동일 Citigroup은 가정용 태양력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solar home equity loan을 2006년에 발표
Auto Loan	Mecu	호주	개설 이래 은행의 자동차 담보 대출이 45% 증가
F l e e t Loan	Bank of America	미국	인가 절차가 신속하고, 담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만기가 유연함 주로 연료 효율이 좋은 기술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트럭수송업체에 제공됨 SmartWay Upgrade 설비를 구매유도로 연비 15% 향상
C r e d i t Card	Rabo bank	유럽	은행은 카드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의 에너지 집약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WWF에 기부함
Deposit	Shore bank	미국	EcoDeposit은 쓰레기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거나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해당 지역의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의 특정 비율을 따로 구분하여 자금을 조달 EcoCash™ Checking Account는 매달 무료로 5장의 수표를 제공하되, 이 이상은 장당 3달러의 수수료를 받음 이 수수료의 일부는 The Climate Trust로 기부

□ 기업 및 투자금융(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 Green Project Finance는 재생산 기술 또는 청정기술을 통해 정부 정책의 원조를 받아 국가와 제휴한 상품에 자금 공급
- Green Securitization은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 보증인을 두고 고객의 위험을 전담하며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위험 분담
- Green Venture Capital & Private Equity는 클린 에너지 성장 시장과 투자기회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 공급 및 컨설팅 제공
- Green Index는 친환경 금융 관련 신규 기준 제시
- Green Commodity는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 제공

<표 5-29> 해외의 녹색금융상품현황(기업 및 투자금융)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Project Finance	Rabobank	글로벌	대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만을 담당하는 특화된 서비스 부서나 TFT가 있음 일부 은행은 BNP Paribas (풍력), WestLB (바이오연료와 풍력) 등과 같이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에 특화함
Partial Credit Guarantees	IFC	글로벌	IFC는 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 당국이 발행한 채권을 제공
Securitization	IFC	글로벌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증권화 거래 IFC는 위험성의 중간 단계에서 보증인이나 투자의 역할을 수행
Bond	Various	파나마	Forest Bond는 파나마의 대규모 삼림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됨 재보험업자는 25년 만기 채권을 인수하고 파나마 운하의 투자자 및 운하를 자주 이용하는 운송업체들이 이 채권을 구입
Tech-nology Leasing	Rabobank	유럽	2005년 동안 Rabobank는 green lease 제도로 1억300만 유로를 조달
IPO Support	A	글로벌	Citigroup은 Brasil Ecodiesel(남미 최대 바이오 디젤 생산자)의 언더라이터로서 1억7700만 달러 규모의 IPO를 인수하여 브라질과 국제 시장에 매각
Private Equity	Bank of America	북미	산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사모펀드 6500만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로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토지와 지속가능 산림의 유지·경영을 지향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필요한 자금의 100%를 할인된 금리로 대출 목재 판매로 얻은 수익은 지역 경제에 재투자됨

##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SRI Equity Research	W	글로벌	자본전략팀의 분석가들에 의해 생성된 상향(bottom up) 이니셔티브임
Eco-Indices	ABNAMRO	유럽	<p>ABN AMRO의 Private Investor Products 사업은 여러 종류의 자산에 맞춰 에코상품 개발</p> <p>물과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구조 개발</p> <p>고객자산: 10억 유로</p> <p>높은수익률: water index의 가치는 개설된 지 18개월 만에 평균 시장 상승률(10-12%)보다 훨씬 높은 50%를 기록</p> <p>Solar energy index는 작년 보다 30% 상승했고 지난 3년간 300%의 상승률을 기록</p>
Carbon Commodity Products	Barclays	유럽(북미)	<p>은행들은 CDM과 JI 프로젝트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 주식, 대출 등을 제공</p> <p>은행들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탄소 배출권을 파내고, 은행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공급하며, 배출 수당과 탄소 배출권을 근거로 대출 상품을 개발함</p>
Allowance Trading Products	Barclays	유럽	Allowance trading products: 물리적 순서의 신중한 배치, 고정 또는 변동 스왑, 조정 매매, 옵션, 배출권 재 구매, 현물과 선물 거래를 위한 시장 조성, 교차상품에 기초한 가격 헤징

### ☐ 자산운용(Asset Management)

- Green Fiscal Funds는 지분을 사거나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수익 발생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은행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저이자 대출을 지원함
- Green Investment Funds는 지속가능한 투자 펀드로 투자 적합성 평가가 복잡해짐에 따라 발전함
- Carbon Funds는 GHG 배출 절감 프로젝트에 도움

##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표 -30> 해외의 녹색금융상품현황(자산운용)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Green Fund	UBS	유럽	UBS (Lux) Equity Fund 개설 후 4년 만에 총 자산이 2억5000만 달러에 이르렀고, 이중 80%는 환경/사회 분야의 주요업체에게, 20%는 “에코혁신기술업체”에게 지원됨 UBS (Lux) Equity Fund: 청정 에너지 부문에 투자
Cat Bond Fund	Credit Suisse	유럽	Leu Prima Cat Bond Fund 세계 최초의 공공 기금 부분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자연 재해를 대상 초기 수요가 매우 높아 2002년 말에 모두 판매되었고, 2003년에 새로운 펀드가 개설됨 펀드의 초기 모형은 2억4300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

☐ 보험(Insurance)

- 친환경적인 특징에 기반을 둔 보험 프리미엄을 차별화하는 Green Insurance 및 탄소 배출권 가격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Carbon Insurance

<표 5-31> 해외의 녹색금융상품현황(보험)

상품 및 서비스	해당 금융기관	지역	내용
Auto Insurance	Aviva, GMAC Insurance	영국, 독일, 캐나다	Pay As You Drive™ Insurance: 주행거리에 기반을 둔 보험
Home Insurance	ETA	영국	“Climate Neutral” Home Insurance Policy
Commodity Insurance	Swiss Re	유럽	Emissions Reduction Trade를 위한 Contingent Cap Forward
Commodity Insurance	AIG and Marsh	유럽	탄소배출권 보증

### 라. 해외 탄소시장 현황

- ☐ 전세계 탄소배출권시장에서 EU ETS(Emission Trading Scheme)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 2007년말 전세계 탄소거래금액은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거래금액 기준으로 EU ETS가 전세계 거래의 78%를 차지
  - World Bank는 탄소시장이 2010년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표 5-32>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동향

구분		거래량 (백만 CO2)		거래대금(백만 달러)	
		2006	2007	2006	2007
할당량 시장	EU ETS(EUA)	1,104	2,061	24,436	50,097
	New South Wales(호주)	20	25	225	224
	Chicago Climate Exchange (미국)	10	23	38	72
	합계	1,134	2,109	24,699	50,393
프로젝트 시장	Primary CDM	537	551	5,804	7,426
	Secondary CDM	25	240	445	5,451
	Jl(Joint Implementation)	16	41	141	499
	기타	33	42	146	265
합계		611	874	6,536	13,641
총계		1,745	2,983	31,235	64,034

자료: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8.

- 탄소배출권 주요 거래소는 감축의무가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
-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으로 선물, 옵션, 스왑이 상장되어 있음

<표 5-33> 탄소배출권 주요 거래소

거래소	현물	파생상품
ECX (European Climate Exchange, 영국)	-	EUAs 선물·옵션 CERs 선물·옵션
Nord Pool ASA (노르웨이)	EUAs	EUAs 선도거래 CERs 선도거래 EUAs-CERs 스왑
BlueNext (프랑스)	EUAs CERs	EUAs-CERs 선물
EEX AG (European Energy Exchange AG, 독일)	EUAs	EUAs 선물·옵션 CERs 선물
CCX (Chicago Climate Exchange, 미국)	CFI	-
CCFE (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 미국)	-	CFI 선물·옵션

(가) 주: ECX는 2009.3.13일 EUAs/CERs Daily Futures Contracts를 상장.

(나) 자료: KRX.

가. 1) 환경 금융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 1) 가) 환경금융의 국내 현황

- ☐ 최근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녹색관련 금융상품 및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녹색성장산업을 지원하는 등 녹색금융을 지향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안에 녹색금융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sup>1)</sup>
- ☐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 ☐ 최근 다수의 금융기관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환경금융의 기반을 다지고 있음

#### <표 5-34> 국내 금융기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현황

(2008년 말 기준)

국제협약	참여기관수	주요 참여기관
GRI 작성	35개	아시아나, 현대자동차, 산업은행, 한국토지공사 등
UNEP/FI	8개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UN PRI(주)	9개	미래에셋자산운용, 농협CA투신운용, 에코프론티어 등
UN Global Compact	151개	기업은행, 대우증권,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CDP(주)	15개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은행, 산은자산운용 등

주: 2009년 4월말 기준.

#### ☐ 환경펀드

- ☐ SRI펀드는 2000년대 초 시장에 등장하였으나, 낮은 성과로 실패함
  -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SRI펀드가 재등장하여 현재 광의의 국내 SRI 펀드는 약 7,600억 원 수준임
  - 국내투자대상(16개)은 3,730억 원, 해외투자대상(16개)은 3,828억 원
  - 공모 SRI 중 국내 투자 SRI 펀드의 누적수익률은 10.54%이며, BM 초과수익률은 8.14%인 반면, 해외투자 SRI 펀드의 누적수익률은 -38.11%이며, BM 초과수익률 -18.75% 인 것으로 나타남
- ☐ 2009년 3월 기준 국민연금은 6,600억원을 SRI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 2009년 4월 30일 기준 6개의 녹색펀드 출시, 전체 설정액은 6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가)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에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②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③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④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⑤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표 5-35> 국내 SRI 규모

(단위: 개, 억원)

		ESG	지배	환경	합계
국 내 투 자	펀드수	13	3	-	16
	펀드규모	2,364	1,366	-	3,730
해외투자	펀드수	3	-	13	16
	펀드규모	50	-	3,778	3,828
합계	펀드수	16	3	13	32
	펀드규모	2,414	1,366	3,778	7,557

주: 2009년 4월 20일 기준.

### □ 정책금융

- 산업은행은 녹색산업에 대한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벤처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환경산업 및 관련 설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약 1조원을 ‘녹색산업 육성자금’을 대출 또는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
- 수출입은행은 녹색성장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
  - 녹색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2008년 2,500억원에서 2009년 8,400억원 규모로 확대
  - 녹색산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강화할 계획임
  - 기후변화 관련사업 등을 최우선 지원분야로 선정하고, 경제협력기금과 자체 자금의 혼합신용(mixed credit)을 확대
  - 2009년 1월 공공탄소펀드 설립·운용을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공탄소펀드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임
- 신보와 기보는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
  - 보증비율 상향조정,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 부여하며, 특히 기보는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지원

### □ 탄소시장

-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최초로 2007년 하반기 사모 탄소 펀드와 사모 탄소배출권 펀드를 모집함
  - 탄소펀드는 국내·외 CDM 사업 및 온실가스감축사업과 관련 부문에 투자, 약정액은 760억원이며 설정액은 146억원임
  - 탄소배출권펀드는 국내외 탄소배출권 관련 부문에 투자하는데, 약정액은 290억원으로 2009년 6월부터 운용될 예정임

### 2) 나) 국내 환경 금융의 문제점



- 녹색금융 발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 금융기관의 참여 불충분
  - 녹색금융에는 환경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개념과 녹색성장 지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음
- 제도적 인프라 미비
  - 녹색금융지원 제도, 기업의 환경요소에 관한 정보 공개 체계, 녹색인증제도, 환경에 대한 대부자 책임 등 관련 규율 미비
- 기술적 인프라 미비
  - 녹색금융 상품 설계를 위한 녹색금융지수도 없을 뿐 아니라 환경관련 DB가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 특히 국내 환경펀드는 업종 대표주와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우량주 펀드와 크게 구분되지 않음<sup>2)</sup>
  - 녹색기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체계가 확립되지 못함
- 인적 인프라 미비
  - 환경부문과 금융부문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녹색금융에 관한 인식도 낮은 수준임
- 녹색금융상품 및 탄소시장 미비
  - 녹색대출 개시, 녹색기술 개발, 배출권(CER)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 기술 인프라 미비로 녹색금융과 탄소시장 활성화에 제약있음

### 나. 2) 환경금융의 국내 활성화 방안

#### 1) 가)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녹색성장 발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녹색소비자가 출현하고 녹색금융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
    -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의 달성시 경제적 효과와 환경개선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단기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임
    - 초기: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
    - 중장기: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녹색기술·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

(가) 2) 대신증권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SRI펀드 포트폴리오의 대형주 편입 비중은 2006년 이후 평균 77.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 □ 제도적 인프라 구축

- 투자, 여신, 신용평가, 회계 등 주요 법·제도에 환경 요건 반영
  - 대부자·수탁자 책무에 환경 고려 의무화, 신용평가 및 회계 제도 보완
- 기업 녹색경영 정보 공개 촉진을 통한 금융기관의 정보 활용 유도
  -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 제도화: KRX 등의 관련 규정에 ESG 정보 공개 요건 반영
  - 기존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관련 환경정보의 공개 추진
- 녹색기업 지정제도 도입을 통한 여신 및 투자대상 가이드라인 제공
  - 녹색기업 지정 및 금융권의 녹색금융을 위한 관련 정보 활용 방안 마련
  - 녹색금융상품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투자업 육성 기반 구축
  - 녹색금융상품 투자시 세제지원, 해외관련 상품 정보 시스템 구축, 해외 녹색투자기관의 국내 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 녹색투자 전문기관 설립 지원
- 녹색금융상품 관련 위험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기반 구축
  - 녹색기업·산업 투자위험 관리 상품 도입, 업계 자율기반 구축, 상품명칭, 상품 설명서, 운용보고서 등에 정보 공개

### □ 기술적 인프라

- 여신·투자기관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정보 DB 제공
  - 기업 녹색경영성과 및 리스크, 녹색사업 추진 현황, 녹색기술 보유 현황 등
  - 녹색기업 분석 평가(Rating) 체계 강화 및 녹색지수 개발
- 전문 녹색평가기관 설립 지원
- 녹색경영 및 녹색산업 지수 개발
  - 녹색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업지수 및 녹색(탄소)위험반영지수 개발

### □ 인적 인프라 구축

- 기존 금융인력 대상으로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녹색금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금융기관 연수과정 및 금융 MBA에 녹색금융 전문 과정을 보완
- 녹색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녹색금융 소비자에 대한 교육 강화
  - 녹색금융 공익광고 실시 및 북미 지역의 “SRI in the Rockies”와 같은 녹색금융 컨퍼런스 개최

### 2) 나) 녹색금융상품 개발 및 정책적 지원

### □ 녹색상품의 개발

- 기존 금융상품에 녹색요소가 연계된 상품의 개발
  - 은행: 여신시 환경기술 및 환경위험 요소 고려
  - 금융투자회사: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
  - 보험회사: 녹색위험의 인수
- 복합적 녹색금융 상품의 개발
  - 은행, 보험, 금융투자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 □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 녹색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목적의 정책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녹색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확대
  - 녹색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확대
  - 탄소펀드, CDM 사업 및 해외금융기관과의 연계 투자 확대
  - 정부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유도
  -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금융회사의 녹색기술 기업 지원을 위해 민간주도의 매칭 펀드에 정책자금 지원 확대

### □ 신상품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

- 녹색산업·기술에 내재하는 위험관리 수단 제공
  - 녹색금융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녹색위험 인수
  - 기존의 기보·신보를 활용하거나 민영 녹색금융 보증회사 허용
- 녹색펀드 구성시 자금의 일부 지원
- 공적 연기금 등 활용
- 녹색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 정책적 지원은 초기에 제한적으로 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녹색 금융 메커니즘 구축

### 3) 다) 탄소시장 육성

### □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탄소배출거래소(Korea Carbon Exchange) 설립
  - 매매, 청산, 결제 시장감시 등 자체 시스템 구축 및 외부시스템과 연결
  -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회원, 매매, 청산, 결제 시장감시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마련 및 거래 관련 제도 정비
-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여 단계적 배출권 거래제도 본격 도입 및 적용 대상 확대
  -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및 제도 도입으로 산업계,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초기시장 활성화 유도
  - 의무적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은 시범거래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시장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지수 등 다양한 거래 상품 준비

### □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 탄소관련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개발 지원
  - 탄소자산 관리, 브로커리지, 탄소 관련 지수, 배출권 파생상품, 기업 탄소경영 평가 전문 회사 등 탄소금융 전문기관 설립 지원 및 세제 혜택
-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개발 지원 및 해외 배출권 사업 관련 금융서비스 개발 지원
  - 개도국 탄소 배출권 사업 수행하는 개발기관·투자기관에 대한 사업 개발 관련 경비 보조, 자금 융자, 펀드 조성 및 세제 혜택 검토

### □ 아시아 탄소시장의 허브 육성

- 아시아 개도국에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지원을 통해 우리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

및 운용 노하우 전수

- 탄소배출권 관련 법령, 정책, 거래제도, 거래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범아시아 통합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및 녹색은행 설립 검토